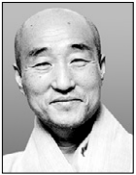


알주문



군중교구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봉행
군중교구장 일면 스님은 6월 27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 3000여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승가대 총동문회장 선출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6월 15일 열린 해인승가대 총동문회에서 제15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재임명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6월 25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재임명장을 받았다.



육천불교사암연합회장 재선출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6월 19일 열린 육천불교사암연합회 정기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5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속초시노인복지관 이미용 서비스
신흥사복지원 속초시노인복지관장 묘근 스님은 월2회 20000여어와 연계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033)636-3373



만해 추모 다례제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성욱 총장은 6월 29일 만해 한용운 스님의 65주기를 맞아 열반지인 종로 심우장에서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다.



부산 진불선원 개원
대한불교달마종조계종 곽태일 법사는 6월 28일 부산 진불선원을 개원해 대중포교에 나섰다. (051)635-3110



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 선임
동국대 김용표 교수는 6월 12일 열린 불교교육연합회 제57차 총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은 7월 13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연다. 7월 5일까지 접수. (02)722-2101



무용으로 표현한 인생 여정 '순례'
무용가 홍신자씨는 6월 26일 열린극장 창동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구도라는 의미를 담아 '순례: Pilgrimage'를 공연했다.

“외형보다 알찬 내실 위해 묵묵히 정진”

23일 설악산 신흥사 주지취임 우승 스님

“보이는 불사에 치중 않고 부처님 법이 닿기 힘들었던 사각지대를 발굴해 이웃과 함께 하는 포교에 전념하겠습니다.”

6월 23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주지 취임법회가 봉행됐다. 법회에서 제25대 주지에 취임한 우승 스님(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신흥사 주지에 취임하게 돼 기쁨에 앞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암 대종사, 성준 대선사, 오현 큰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의욕하고, 사부대중 중지를 모아 화합과 상생의 길로 도량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경전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진다’고 했다”며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고 외형보다는 알찬 내실을 거두도록 묵묵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지 취임 전부터 우승 스님은 10여 년간 신흥사 총무와 부주지 등 크고 작은 소임을 삼며 실질적인 신흥사 살림을 맡아왔다.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대중

과 하나된 교구본사 운영을 위해 스님은 복지 포교분야에 남다른 원력을 세웠다. 화려한 진산식을 취임법회로 간소화하면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취임법회는 주지 진산식을 겸박하게 봉행하는 신흥사 전통에 따라 법도의 초창장 인사 교구 내 스님들과 지역 인사 및 불자들에게만 연락했다.

취임법회에 이어 속초지역 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실직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 160세대에게 3000만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전달, 나눔을 행하는 향기로운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우승 스님은 “진산식 봉행할 비용을 아껴 보시하는 마음으로 불우이웃을 돕고자 했다”며 “쌀, 미역, 김, 김치, 라면 등 성금 및 물품을 전달, 나눔을 행하는 향기로운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스님은 “주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산중포교는 새 시대를 맞고 있다. 보다 많은 대중이 산사에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승 스님은 부주지 시절부터 설법전에서 진행한 학생 수련대회의 횃수를 늘리고 강사진을 보강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행정체들을 통합해 매월 1회 봉행해 왔던 통합법회를 분기별 1회로 늦추는 대신 전국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행사로 바꾼다.

교구본사 내 대중의 화합 역시 우승 스님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스님은 “오현 큰스님의 지도로 신흥사 사부대중의 화합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지 소임을 사는데도 화합을 우선시해 고암 스님 이후 이어진 법맥을 바로 잇겠다”고 말했다.

신흥사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등을 이유로 관광객들과 마찰도 많았다.

우승 스님은 “최근 송사에서 법원이 신흥사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종단차원의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조계종 분발사주지결의대회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흥사 한주 오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우승 스님에게 중국 송대(宋代) 오조법연(五祖法演) 선사



의 ‘법연사계(法演四戒)’의 가르침을 새길 것을 주문했다.

“법연사계”는 선사의 제자 불감해근 스님이 서주(舒州) 태평사(太平寺)의 주지를 맡아 하직인사를 하러가자 주지로서 네 가지 경계할 점을 일러준 것으로 <중문무고(宗門武庫)>에 실려 있다.

법연 선사는 주지에 부임하는 불감해근 스님에게 ▲권세를 다 쓰지 말 것(勢不可使盡) ▲복을 다 받지 말 것(福不可受盡) ▲모범을 다 행하지 말 것(規矩不可行盡) ▲좋은 말을 다 말하지 말 것(好語不可說盡)을 당부했다.

젊은 주지 우승 스님의 취임과 더불어 세대교체를 이룬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영북지역 불교발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법회에 참석했던 500여 사부대중을 비롯한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조동섭 기자

태국 담마까야 사찰 대표단, 한국방문



세계최대 명상센터인 태국담마까야사찰 대표단이 6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했다. 승문, 파이론 스님 등 담마까야사찰 대표단은 6월 21-25일 법어사, 불국사, 통도사 등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현장회의 개최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해경)이 수탁운영 하는 서울시립중앙노인전문요양원(원장 고정숙)은 6월 23일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현장회의’를 열었다. 관계자 21명은 진각종 총무원장해경 정사와 대담을 가졌다. 이은기 기자

‘반갑다 연우야’ 양·한방 무료진료



불교의료봉사단체 ‘반갑다 연우야’는 6월 20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서 양·한방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150여 어르신들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침시술, 약 처방 등을 받았다. 이은기 기자

봉황사, ‘산신각 산신등신불 점안식’ 봉행



대한불교화엄종계종 총본사 봉황사는 6월 19일 ‘산신각 산신등신불 점안식’을 중정법정 스님, 총무원장 혜산 스님과 지역총무원장 스님 15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손범철 대구지사장

대전 탄방초, 쌀모아 복지관 전달



대전 탄방초등학교(김광수 교장)는 6월 23일 전교생이 심시일반 모은 쌀 1123kg을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국)에 전달했다. 6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쌀모으기’에는 1500여 전교생이 동참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이 부처님 법 펴는 것”

62주년 맞은 동대부고, 종립학교 비전 밝힌 오택원 교장

동대부고 설립 62주년을 맞은 6월 24일, 오택원(56·사진) 교장은 고교선택제 실시를 앞두고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비전을 밝혔다.

오 교장은 “실력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이 결국 부처님 법을 펴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교원들은 단합해 우수학교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학생 수급을 위해 각 고교 간 경쟁이 심화되는 신호탄이다. 이를 대비해

동대부고는 △학력신장 영역 △홍보활동 영역 △교육환경개선 영역 3분야에 걸쳐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학력신장을 위해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150석 규모 독서실을 조성해 주말마다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에 나서고 있으며, 동대부군청으로부터 교육지원금 1억 2500만원을 확보해 수능관련 과목만 개설 및 · 구술 대비반도 개설할 예정이다. 학교 홍보를 위해 7월 7일과 15일 메가스터디 이석록 소장, 이만기·소운영 강사 등 유명 입시강사를 각각 초

빙해 대학·고교입시설명회도 연다. 교복 개정과 잔디운동장, 강당 및 교실 개보수 등 각종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오 교장은 “지난해 9월 취임과 동시에 젊은 선생님들 20여명으로 동국발전위원회 TF팀을 만들어 발전안을 마련했다. 학력신장, 기초생활지도, 홍보전략 3개 부문에 걸친 TF팀 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장은 끝으로 “‘심원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백년을 내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학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level and Content. Rows include Basic course (3 semesters), Intermediate course (3 semesters), Practice method (1 year), and Special practice (1 year).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금)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등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기간 : 6주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기출, 습관, 성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 032)349-0666/fax 032)349-0665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1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 제공